

#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간일 2022년 10월 24일  
감수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

발행인 김종덕 원장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5
탱커선	17	중고선	21	주요 해운지표	24

- 건화물선** 지난 주 케이프선 운임 17,953달러/일 기록, 당대회에서 '제로 코로나'정책효과 강조, 중국 태풍 내상(NESAT)영향, 트랜스넛 파업 종료
-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35.3p 하락한 1,778.7p를 기록하며 하락세 지속
- 탱커선**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22.9p 상승한 108.2 기록, 동절기 물동량 증가세와 중국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수요 개선 기대

윤재웅 해운빅데이터연구 센터장 / jwoong01@kmi.re.kr | 051-797-4633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건우 부연구위원 / ak8102@kmi.re.kr | 051-797-4638  
이상혁 전문연구원 / sanghyeoke@kmi.re.kr | 051-797-4625  
김병주 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 1. 주간뉴스

### 2030년대 친환경에너지 수급 격차 심화 전망

- ▶ 해운 경제학자인 마틴 스토포드는 2020년대보다 2030년대에 친환경 에너지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함
  - 2050년까지 세계 GDP는 현재보다 2배, 인구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친환경 연료에 대한 공급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때문에 선사 또는 선주들은 향후 발생하게 될 친환경 에너지 수급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대안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 친환경 연료 사용에 대한 수급 문제와 함께 비용 상승도 고려해야 함
  - 그린 메탄올을 사용할 경우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일일 400톤이 필요하며 이를 생산하기 위해 36개의 풍력설비가 필요함. 결과적으로 일일 10만 달러에 달하는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전력생산에서 약 13% 만이 친환경(태양열, 풍력 등)설비를 이용하고 있어 향후 녹색 전력 확보가 관건임
  - 마틴 스토포드는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원자력이 대체 연료로 가능성이 있으나 평가는 상이함. 메탄올은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 연료, 수소는 선박에 도전적인 연료, 암모니아는 약간 위험한 선택, 원자력은 좋으나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선택지라고 평가함

자료: <https://www.tradewindsnews.com/esg/mind-the-2030s-green-energy-gap-martin-stopford-warns/2-1-1336871>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 COSCO, 공급망 서비스 역량 강화 초점

- ▶ 중국 국영 선사 코스코(Cosco Shipping Holdings)는 공급망 디지털화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공급망 및 물류 부서를 출범시킴
  - 동 성명에 따르면 코스코는 해운과 항만 부문에 디지털화된 스마트 운영 및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갖추기 위해 초점을 맞출 것 이라고 밝힘
  - 따라서 최근 전략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Cosco Shipping Logistics 지분 13.5%를 12억 2,000만 위안(1억 7,140만 달러)에 인수함
- ▶ 코스코에 따르면 이번 인수는 End to End 서비스 네트워크를 향상시키고 통합 물류 및 배송 서비스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힘
  - 코스코는 이번 인수에 창고보관, 트럭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통관 등 화물 원스톱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들이 포함된다고 밝힘
  -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선사들의 종합 물류 서비스를 위한 자산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을 제한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신용등급을 상승 시킬 수 있다고 언급함

자료: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2658/Cosco-puts-focus-on-supply-chain-competence>

김병주 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 1. 주간뉴스

### 2022년 세계 철강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

- ▶ 세계철강협회는 올해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 2.3% 감소하여 18억 톤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러한 수요 감소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함
  -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30년 만에 둔화가 자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중국의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중국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봉쇄정책 및 주요 건설사 파산으로 건설 투자 부진이 개선될 소지가 적으며, 2023년 중국의 철강 수요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높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고려할 때, 유럽연합의 철강 수요 역시 전년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이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기에 2023년 유럽연합의 철강 수요 역시 위축될 것이며 겨울 철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공급이 차질을 빚을 시 철강 수요가 더 감소할 수 있음
  - 미국과 유럽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부동산 부양이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세계 철강 해상물동량은 전년 대비 4.5% 감소함

자료: <https://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2649/Global-steel-forecast-to-sink-into-contraction>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 US 미시시피강 수위 저하, 곡물 수출 장애

- ▶ 미국 농무부의 곡물 운송에 관한 보고서는 미시시피강의 수위 저하 지속이 미국 내륙 지역의 물류 운송을 방해함에 따라 곡물 수출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 10월 18일 미국 멤피스 강의 수위는 10.76피트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준설로 인한 수로 폐쇄 및 일부 바지선 좌초가 속출됨에 따라 바지선을 통한 물류 운송이 지연되고 있음
  - 예상 강우량을 고려할 때 선박 흘수 제한 등 운항 제한 조치는 최소 10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예인선 견인 시 40%의 바지선 사용을 금지 시킴
  - 선박 중개업체인 심스스펜스영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운항 제한은 미국 걸프 해안에 위치한 수출 터미널로 향하는 곡물 수송에 차질을 빚음에 따른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함
- ▶ 미국 대두 수출이 4분기에 최고조에 달함에도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의 미국 걸프만을 출발하는 외항선의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2%, 31% 감소함
  - 미국 내 대두 생산량 감소와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와의 경쟁 심화로 인한 공급 감소로 인해 22/23년 대두 수출량 전망치는 전년 대비 5% 감소한 5,820만 톤으로 예상됨
  - 미국 걸프만 항만의 재고가 고갈됨에 따라 향후 수출량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https://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2655/Low-water-levels-to-slow-US-bulk-exports>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 1. 주간뉴스

### 미 대통령, 전략 비축유(STR) 1500만 배럴 방출 계획 발표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가 하락 유도를 위해 1500만 배럴 상당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발표했으며, 향후 추가 방출 가능성도 시사함
  - 지난 1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 주제 연설을 통해 1500만 배럴(고유황원유 최대 300만배럴, 저유황원유 최대 1200만 배럴) 상당의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을 공식 발표함
  -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은 5월부터 6개월 간 전략비축유 1억 80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1500만 배럴은 당시 승인됐지만 방출되지 않은 원유량의 일부임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유사에 생산을 장려하면서 전략 비축유 보충을 위한 매입계획도 밝힘
  - 그는 현재 전략 비축유는 절반 정도인 4억 배럴 이상을 보유 중이며, 이는 비상 상황 대응에 충분한 양으로 미 정부는 유가가 70달러에 도달하면 전략비축유 보충을 위해 원유를 매입할 것이라고 언급함
  -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의 핵심 지표인 유가를 잡기 위한 긴급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최근 OPEC의 감산 조치 시행으로 유가는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자료: <https://www.cnn.com/2022/10/18/oil-prices-biden-to-announce-release-from-strategic-petroleum-reserve.html>, <https://www.reuters.com/markets/us/goldman-us-spr-crude-releases-have-modest-price-influence-2022-10-21/>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 터키·중국·인도, EU 대러 제재 시행 전 러시아 원유 수입량 증가

- ▶ EU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추가 제재를 앞두고 터키, 중국, 인도 3개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블룸버그에 의하면 지난달 말부터 최종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러시아 원유의 수출량이 증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터키, 중국, 인도로 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됨
  -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주요 원유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터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 12월 EU의 대러 제재 시행 이후에는 러시아산 원유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러시아의 우호국들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량을 늘리고 있음
  - 5월 EU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에 대한 해상보험 가입 제재를 포함했으며, 10월에는 원유 가격 상한제에도 협의하면서 특정 가격 이상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됨
  - EU의 대러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짜는 12월 5일이나, 제재 발효 직후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유조선에 대한 보험이 중지되기 때문에 우호국들은 시행 전 적극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중임

자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10-17/russia-leans-on-turkey-india-china-for-oil-sales-before-eu-ban>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2. 건화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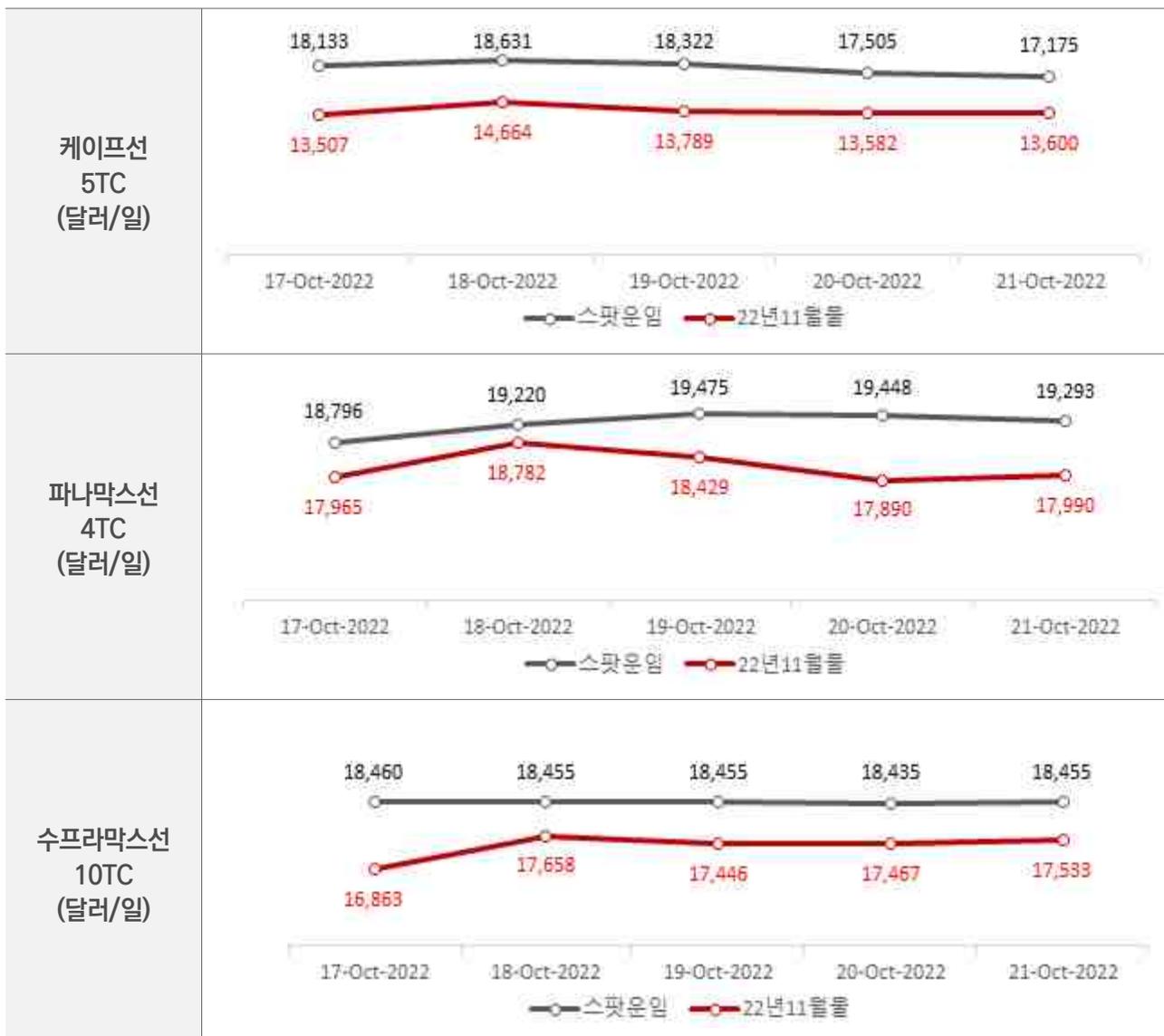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전망

구분	10월 3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FFA 11월물 주간평균가격		전주대비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17,953	▼ -371	-2.0 %	13,828	▼ -731	-5.0 %
파나마선 5TC (달러/일)	19,246	▼ -85	-0.4 %	18,211	▲ 102	0.6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18,452	▼ -295	-1.6 %	17,393	▼ -72	-0.4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KMI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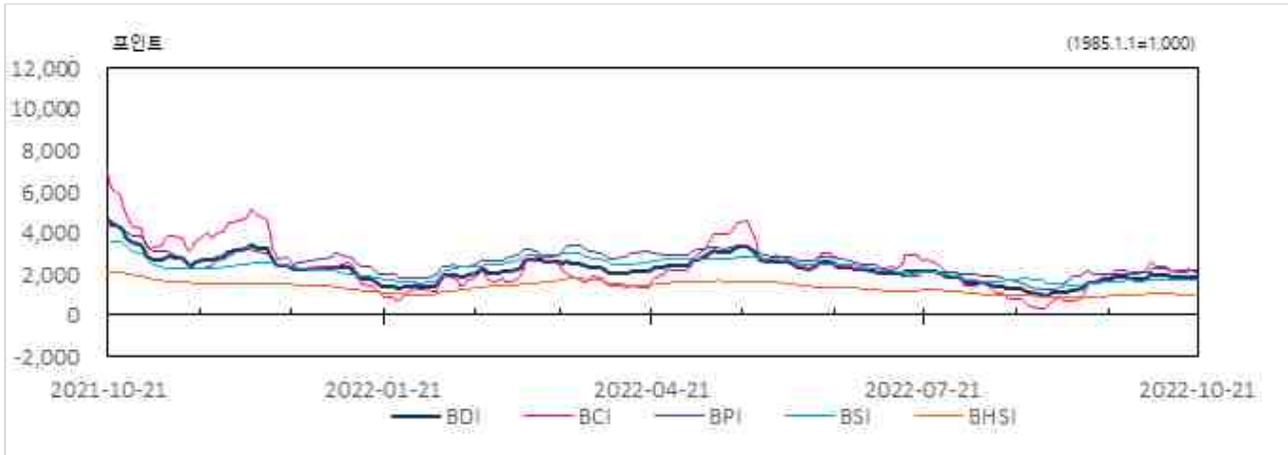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10월 3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b>건화물선 시장(현물)<sup>1)</sup></b>									
운임지수	BDI	1,849	-26	965	3,369	2,052	1,303	5,650	2,943
선형별 운임	케이프(5TC)	17,953	-371	2,505	38,169	16,734	10,304	86,953	33,301
	파나마스(5TC)	19,246	-85	10,956	30,746	22,027	10,936	38,952	25,887
	수프라막스(10TC)	18,452	-295	16,199	33,366	24,059	11,242	39,860	26,730
	핸디(7TC)	17,590	-849	15,463	32,166	22,974	11,695	37,109	25,702
1년 용선료	케이프	14,500	-750	13,500	23,500	17,250	10,125	23,000	16,682
	파나마스	17,875	625	11,200	21,750	14,231	9,625	16,125	12,535
	수프라막스	15,500	125	9,500	18,125	11,759	8,250	12,500	10,340
	핸디	13,750	250	8,063	16,125	9,886	7,313	9,250	8,421
<b>건화물선 시장(FFA)</b>									
		2022년 11월물		2022년 4분기물		2022년물		2023년물	
		10월 3주	전주대비	10월 3주	전주대비	10월 3주	전주대비	10월 3주	전주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13,828	-731	7,328	-157	13,105	-228	13,911	-50
	파나마스(5TC)	18,211	102	13,164	91	13,913	-13	13,913	-13
	수프라막스(10TC)	17,393	-72	12,378	-69	12,769	-143	11,625	-197
	핸디(7TC)	16,800	-300	12,303	-152	12,541	-147	11,455	-101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의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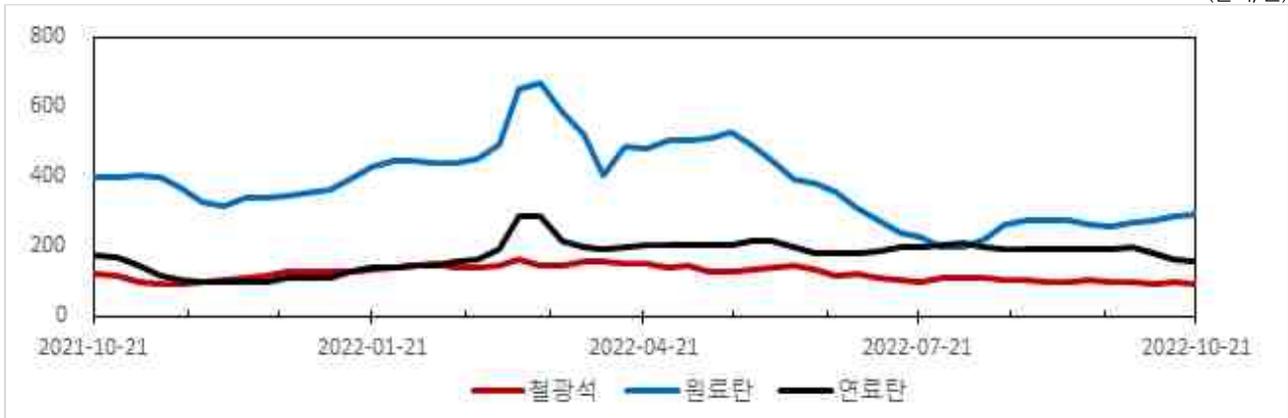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1년			
	10월 3주	10월 2주	전주대비차이	10월 3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92.8	96.5	▼ -3.7	127.9	161.1	89.8	226.5
원료탄	294.5	284.2	▲ 10.4	400.7	220.5	102.2	403.0
연료탄	155.5	161.3	▼ -5.8	156.7	84.3	52.0	175.4
대두	508.3	508.9	▼ -0.7	444.3	500.6	444.3	589.0
옥수수	268.6	273.4	▼ -4.8	205.5	224.2	185.1	278.4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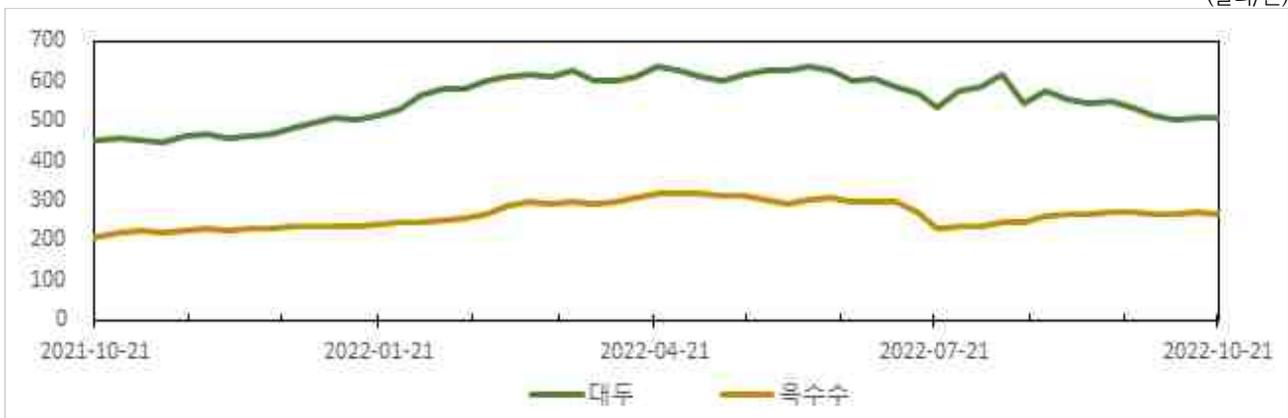
(달러/톤)



자료: Clarkson

곡물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케이프선-동향분석

케이프선 : 지난 주(10월 2주) 대비 2.0% 하락한 17,953달러/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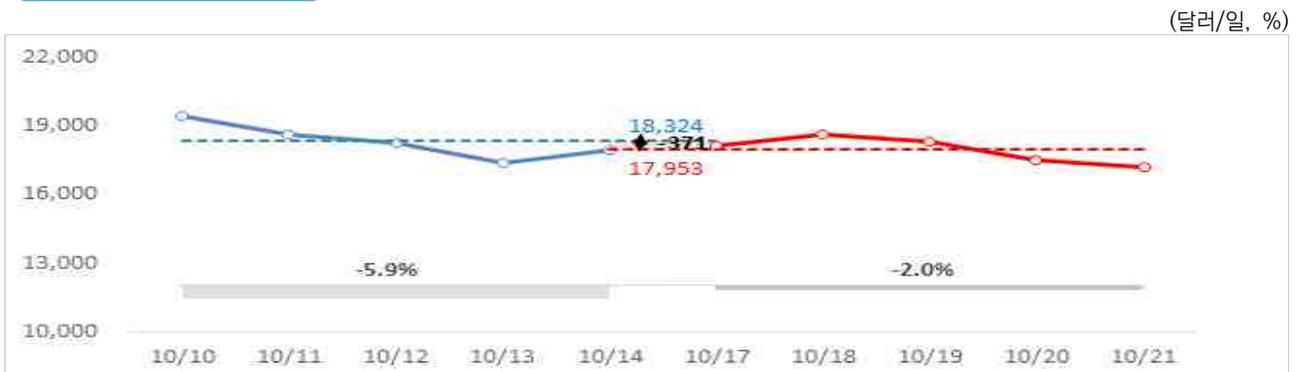
(운임) 케이프선 평균운임이 소폭 하락함

- 주 초반 운임상승은 중국 입출항 예정이었던 선박이 악천후로 인해 운항이 제한되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가용선박수가 제한되며 이끌었으나,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철강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약화함에 따라 운임이 하락함

(동향) 당대회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효과 강조, 중국 태풍 네삿(NESAT) 영향, 트랜스넛 파업 종료

-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현재 중국 경기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완화 방향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를 언급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음
- 하지만 16일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효과를 강조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크게 언급되지 않으면서, 이번 당대회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 기조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임
- 중국 일부 항만이 태풍 네삿(NESAT)의 영향권에 진입해 선박의 입출항이 제한되어, 시장에 선박공급 제한 효과를 줌
- 지난 금요일 남아공의 트랜스넛의 노사간 협정이 마무리되며 파업이 종료되었으나, 브라질-중국 항로 운임은 아직 파업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10월 3주	10월 2주	전주대비차이	
BCI	2,165	2,209	▼ -44	-2.0%
스팟운임(5TC)	17,953	18,324	▼ -371	-2.0%
용선료	6개월	17,000	▼ -2,250	-13.2%
	1년	14,500	▼ -750	-4.9%
	5년	15,000	▼ -125	-0.8%
FFA	11월물	14,559	▼ -731	-5.0%
	4분기	7,328	▼ -157	-2.1%
	22년	13,105	▼ -228	-1.7%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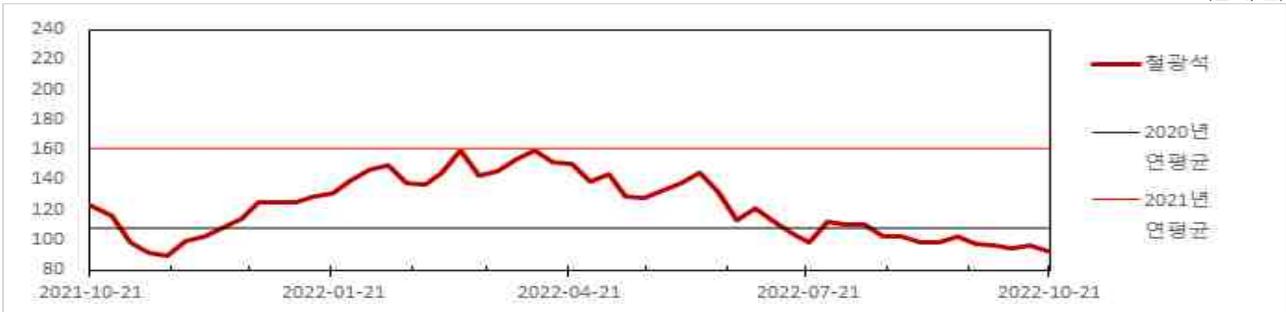


3 케이프선-동향분석

철광석 가격 : 지난 주 대비 3.8% 하락한 92.8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달러/톤)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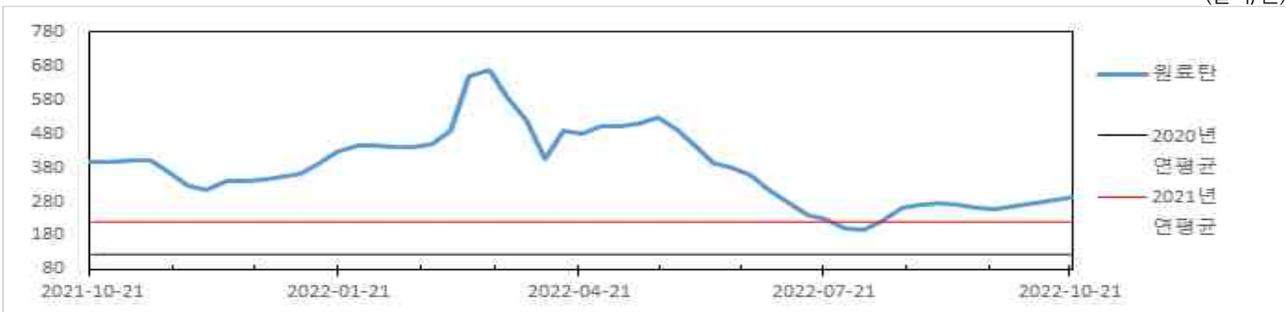
구분	철광석 가격	전주대비차이		
9월 4주	96.3	▼	-1.4	-1.4 %
10월 1주	94.4	▼	-1.9	-2.0 %
10월 2주	96.5	▲	2.1	2.2 %
10월 3주	92.8	▼	-3.7	-3.8 %

자료: Clarkson

원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3.6% 상승한 294.5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달러/톤)



자료: Clarkson



구분	원료탄 가격	전주대비차이		
9월 4주	266.5	▲	8.5	3.3 %
10월 1주	273.4	▲	6.9	2.6 %
10월 2주	284.2	▲	10.8	3.9 %
10월 3주	294.5	▲	10.4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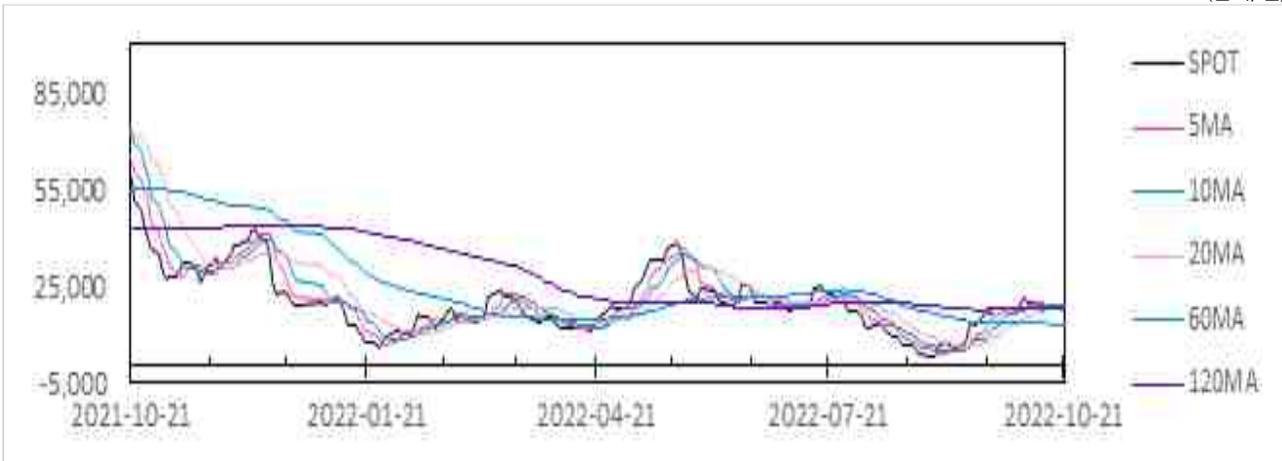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파나막스선 : 지난 주 대비 0.4% 하락한 19,246달러/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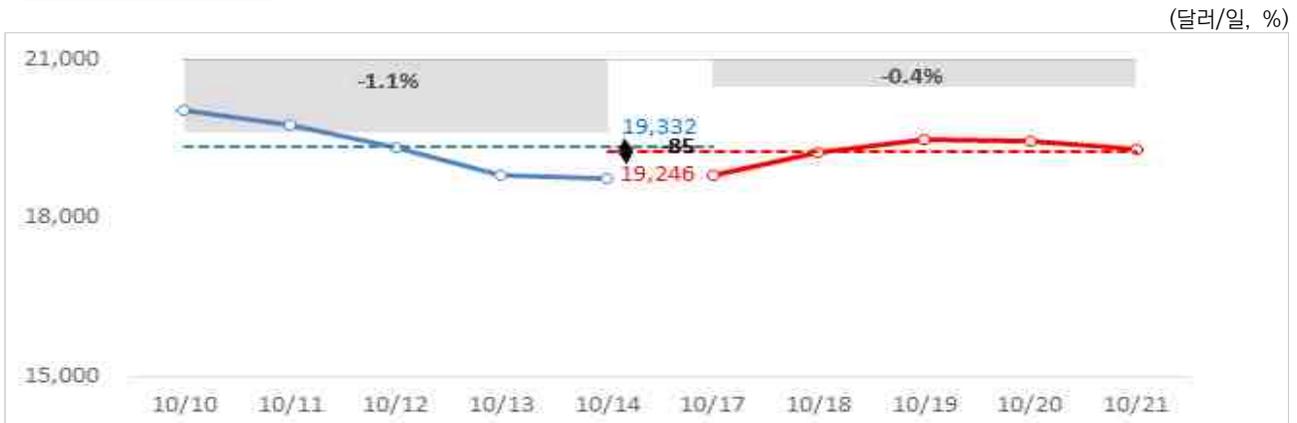
(운임) 파나막스선 평균운임이 약보합을 기록함

- 미국산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나, 미시시피강의 수위 문제가 여전히 운임상승을 제한함. 또한 호주에 발생한 폭우가 석탄생산 일정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일각에서는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운임에 하방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

(동향) 가뭄으로 미시시피강 수위 저하 여파 여전, 호주에 내린 폭우로 주요 탄광업체 석탄생산 일정 지연

- 미시시피강의 수위 저하 문제가 운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안전 운항을 위해 바지선과 선박의 흘수를 제한해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곡물 양이 한정되기 때문임
- 미국국립기상청에 따르면 가뭄으로 인한 수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 예보가 없는 상황으로, 미국 대두, 옥수수 등 곡물 수확시기에 발생한 흘수 제한에 공급 일정 차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회 경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호주에 내린 폭우로 BHP사와 화이트헤븐콜사(Whitehaven Coal)의 탄광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석탄 생산 감소량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특히 화이트헤븐콜사는 3분기 생산량이 급감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파나막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10월 3주	10월 2주	전주대비차이		
BPI	2,139	2,148	▼	-9	-0.4 %
스팟운임(5TC)	19,246	19,332	▼	-85	-0.4 %
용선료	6개월	19,500	▲	875	4.7 %
	1년	17,875	▲	625	3.6 %
	5년	13,950	13,875	▲	75
FFA	11월물	18,211	▲	102	0.6 %
	4분기	13,164	▲	91	0.7 %
	22년	13,913	13,927	▼	-13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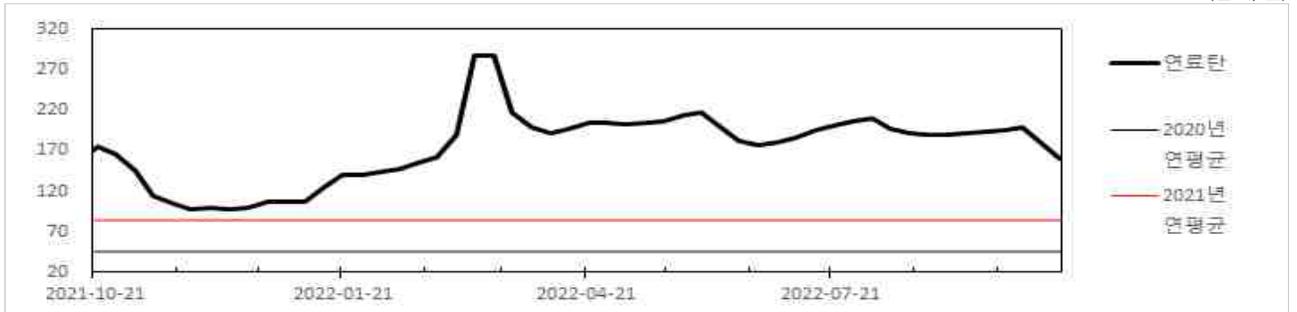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3.6% 하락한 155.5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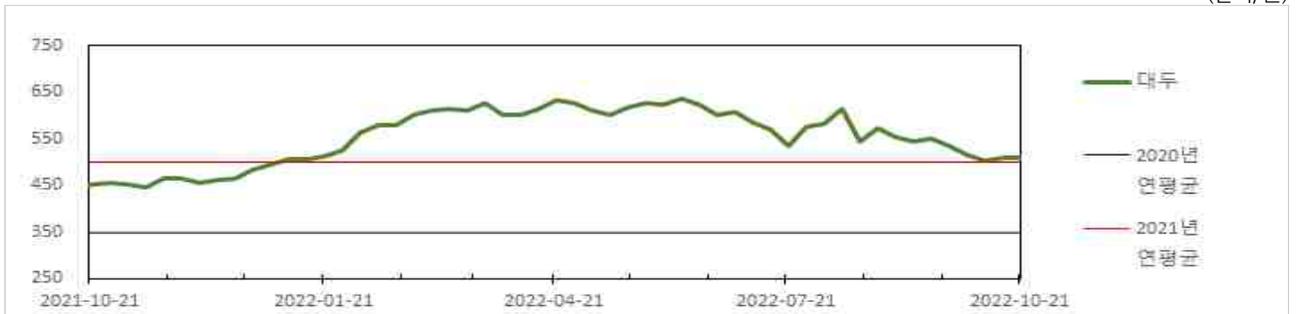


구분	연료탄가격	전주대비차이		
9월 4주	198.3	▲ 3.5	1.8	%
10월 1주	179.6	▼ -18.7	-9.4	%
10월 2주	161.3	▼ -18.3	-10.2	%
10월 3주	155.5	▼ -5.8	-3.6	%

자료: Clarkson

대두 가격 : 지난 주 대비 0.9% 상승한 508.3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구분	대두 가격	전주대비차이		
9월 4주	535.3	▼ -15.0	-2.7	%
10월 1주	514.7	▼ -20.6	-3.9	%
10월 2주	503.5	▼ -11.1	-2.2	%
10월 3주	508.3	▲ 4.7	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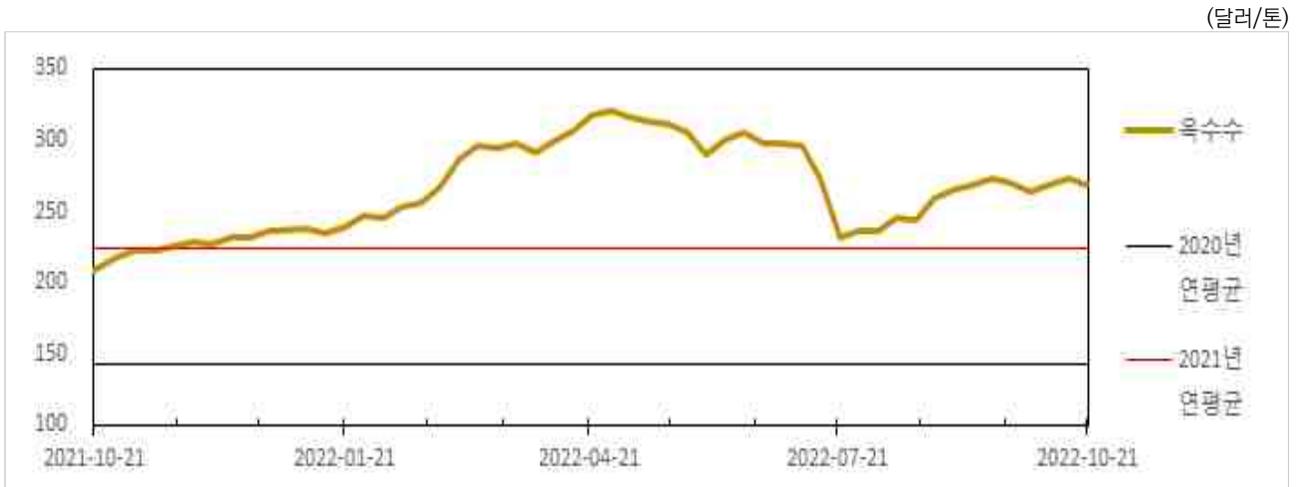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옥수수 가격 : 지난 주 대비 0.1% 상승한 268.6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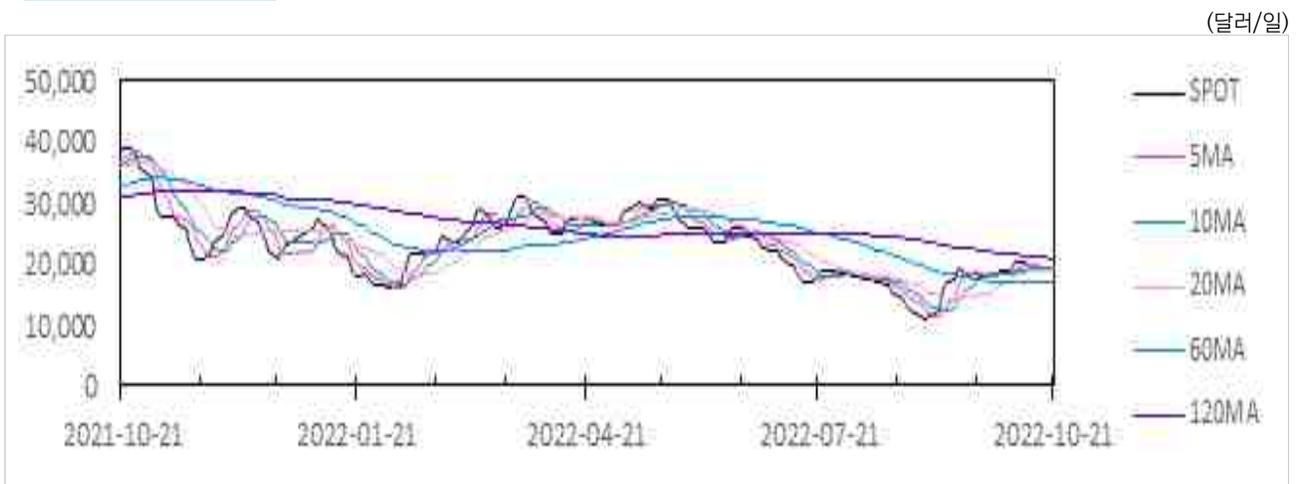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9월 4주	269.3	▼ -2.9	-1.1	%
10월 1주	263.9	▼ -5.5	-2.0	%
10월 2주	268.2	▲ 4.4	1.6	%
10월 3주	268.6	▲ 0.4	0.1	%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파나마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수프라막스선 : 지난 주 대비 1.6% 하락한 18,452달러/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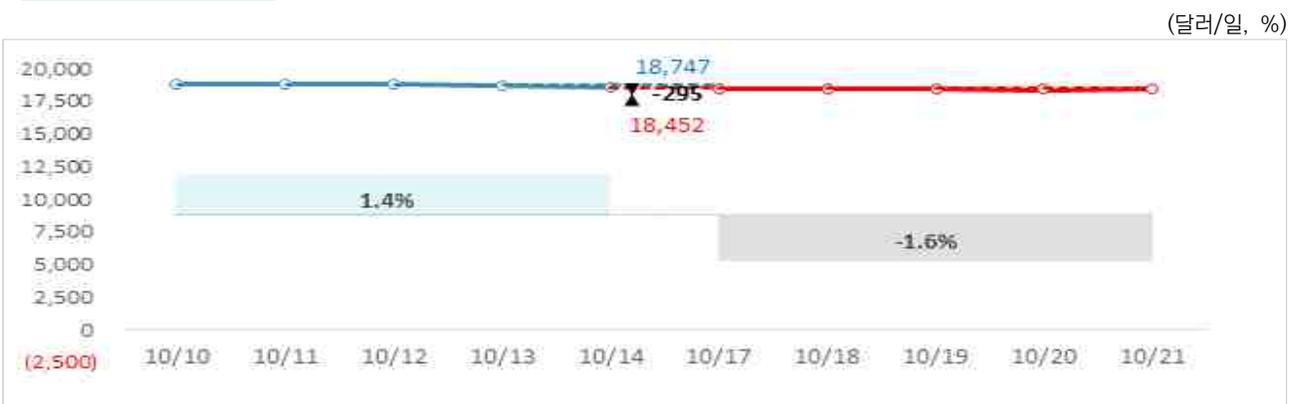
(운임) 수프라막스선 평균운임이 약보합을 나타냄

- 수프라막스선 이하 선박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선박수 증가율이 화물 수요증가를 상회해 운임이 하락함

(동향) 러시아 석탄에 대한 수요 지속

-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전면 금지를 발효한 이후에도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석탄 수입 수요가 발생함
-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려는 중국의 수요 증가로 향후 몇 달간 중소형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임.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국영 광산업체의 석탄 생산량 증대를 지속해서 독려 중이며,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석탄 수입의 수요가 언제든지 둔화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수요는 인도에서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톤-마일을 증가시키고 있음. 인도 정부는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특히 여름 동안 석탄 수입을 늘리도록 독려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톤-마일이 증가했다는 분석임. 또한 러시아산 석탄의 가격을 이유로 인도의 수요가 지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며, 톤-마일 수요증가는 특히 케이프선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10월 3주	10월 2주	전주대비차이		
BSI	1,678	1,704	▼ -27	-1.6	%
스팟운임(10TC)	18,452	18,747	▼ -295	-1.6	%
용선료	6개월	17,500	▼ -1,250	-6.7	%
	1년	15,500	▲ 125	0.8	%
	5년	12,250	▲ 1,250	11.4	%
FFA	11월물	17,393	▼ -72	-0.4	%
	4분기	12,378	▼ -69	-0.6	%
	22년	12,769	▼ -143	-1.1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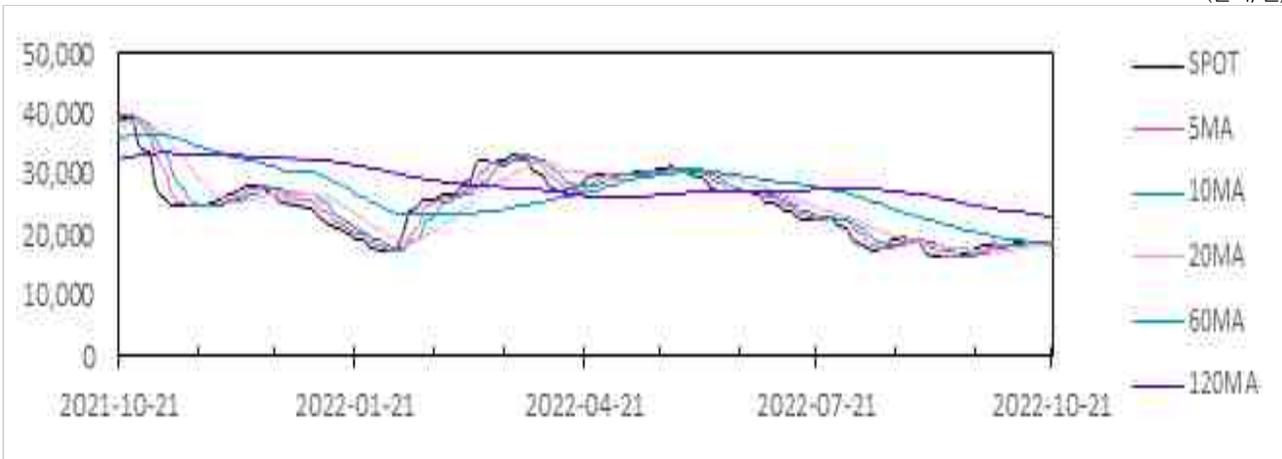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컨테이너선

김병주 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동향분석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지난주 대비 35.3p 하락한 1,778.7p를 기록

(운임) 컨테이너 운임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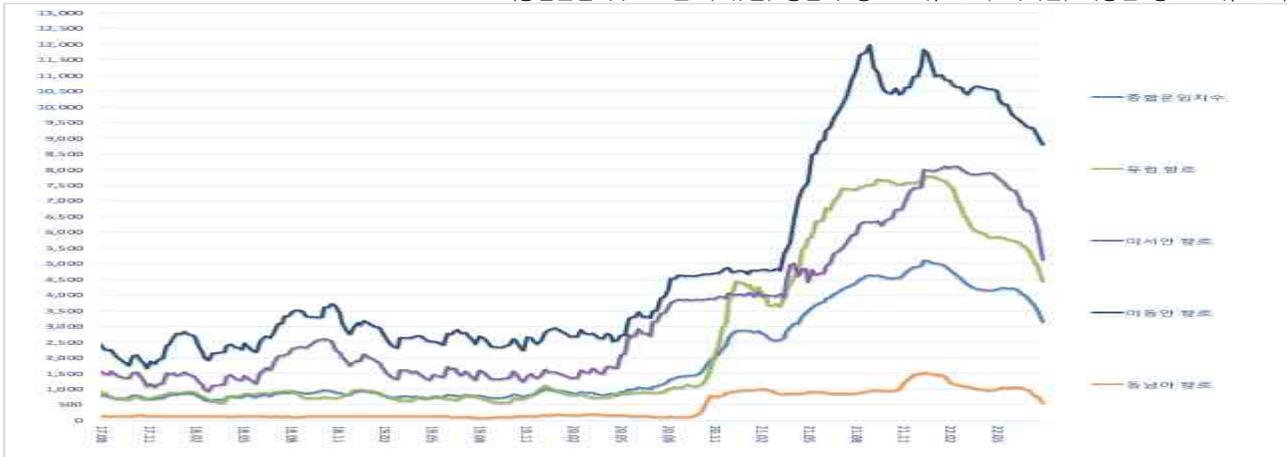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선사들의 공급조절로 하락폭이 작아져 지난주 대비 1.9% 하락한 1,778.7p를 기록함

(현황) 컨테이너 운임 약세 지속 전망

- 내년 컨테이너선 공급량은 260만 TEU, 폐선량은 60만 TEU로 전망되나 GDP 성장률은 1.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선사들의 추가적인 공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밝힘(Drewry)
- 취약한 펀더멘털, 지정학적 불안정 및 열악한 거시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시장은 최소 2023년 초까지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Lloydslist)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10월 4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b>컨테이너선 시장</b>										
운임	종합운임지수	SCFI	1,779	-35.3	1,779	5,110	3,940	2,570	4,956	3,769
		유럽항로	2,379	-202	2,379	7,797	5,735	3,651	7,714	6,078
		미서안항로	2,029	-67	2,097	8,117	6,685	3,931	7,444	5,317
		미동안항로	5,639	-177	5,639	11,833	9,691	4,679	11,976	8,353
		한국항로	255	1	253	456	339	184	386	286
		일본항로	298	-4	281	362	320	251	340	285
		동남아항로	352	3	348	1,537	979	840	1,494	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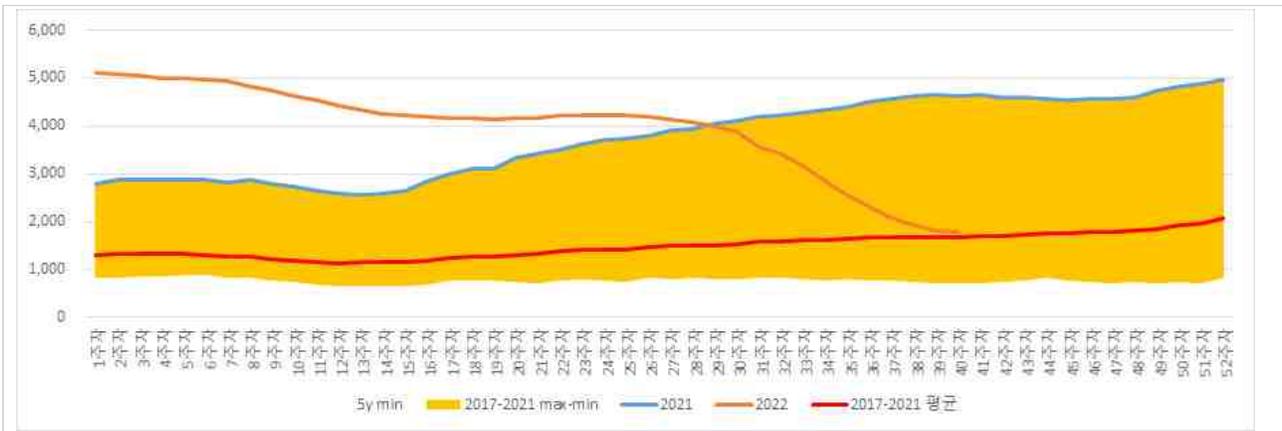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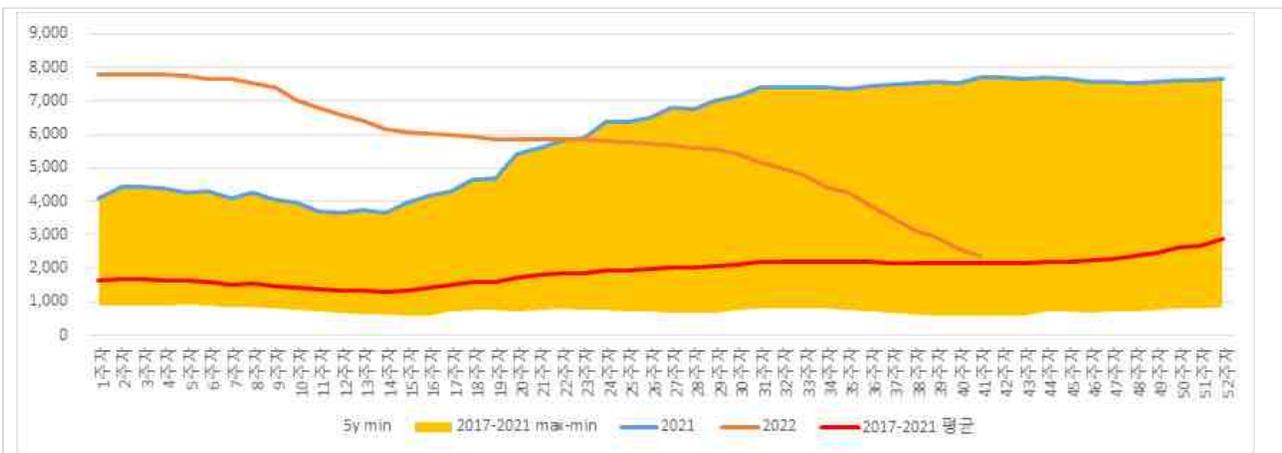
2 운임전망

| 10월 4주('22.10.24~'22.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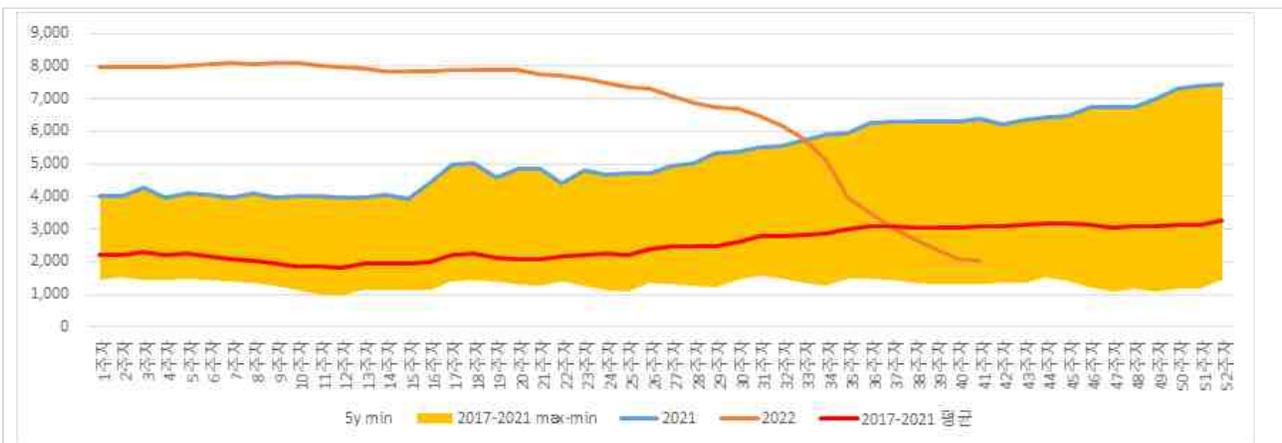
SCFI 지수는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전주(10월 3주) 대비 22.9p 상승한 108.2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상승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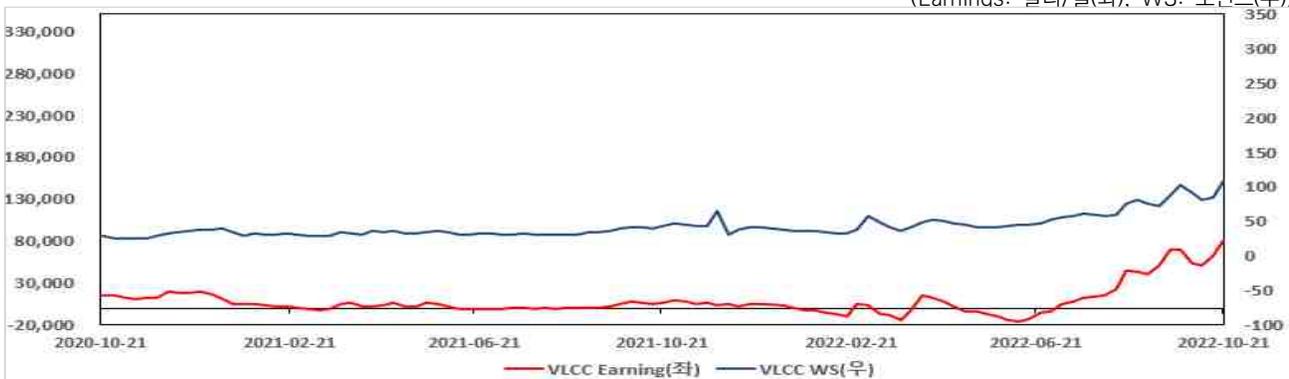
구분	10월 4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108.2	▲	22.9	26.8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55.0	▲	6.0	12.2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107.5	▲	12.5	13.2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110.0	▲	15.0	15.8 %

(동향) 동절기 진입으로 인한 미국, 중동발 원유 수출 증가, 중국의 코로나19 완화 조치에 따른 수요 개선 기대

- 블룸버그에 의하면 현재 중국은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 글로벌 원유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온 중국의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됨
- IEA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함으로써 유럽의 에너지 대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에너지 위기가 천연가스 대체제로 지목되는 원유의 수요 급증 현상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함. IEA는 또한 OPEC+가 올해 4분기에 예상 수요량 대비 적은 하루 약 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으로 파악하는 등 연말까지는 원유 수요량이 공급량을 앞지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동절기 시장 개선 요인으로 평가됨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유조선 시장(항로)	10월 4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동-중국	운임지수	108.2	22.9	32.4	108.2	55.7	28.4	65.1	35.4
항로(TD3C)	평균 수익	72,204	23,377	-24,517	68,674	3,228	-6,779	14,966	-526
VLCC	1년 용선료	41,500	0	15,000	43,000	21,470	18,500	24,125	20,851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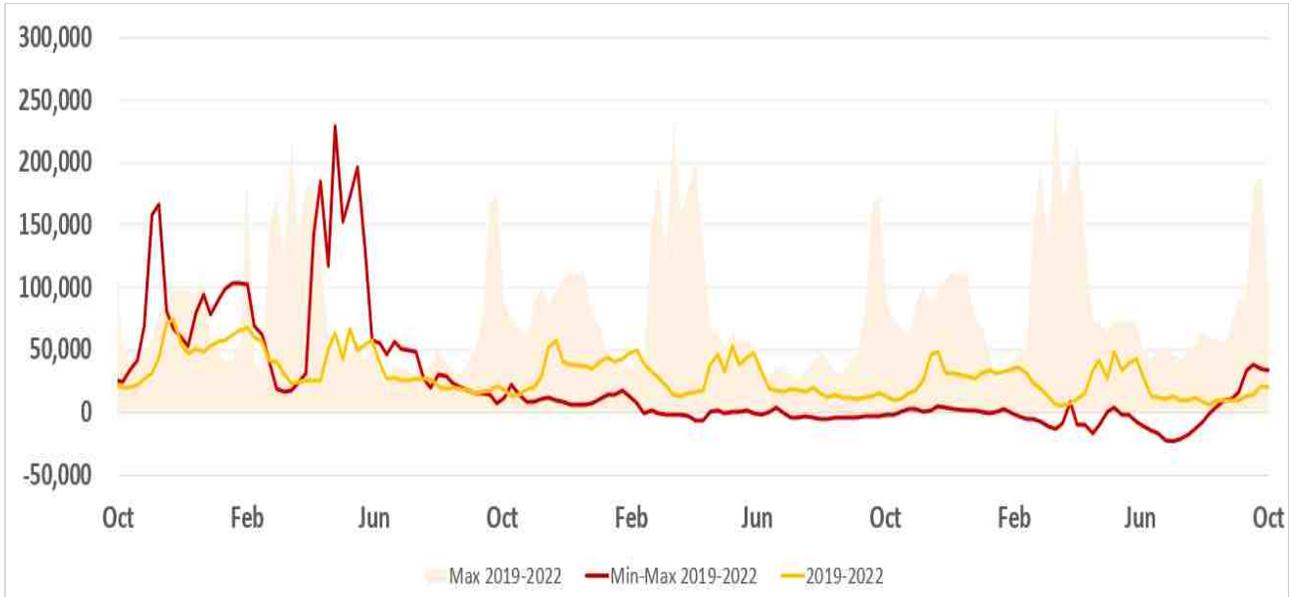


1 유조선-기술분석

수익 추세선(붉은색)은 전주 대비 약 60% 수준으로 대폭 상승함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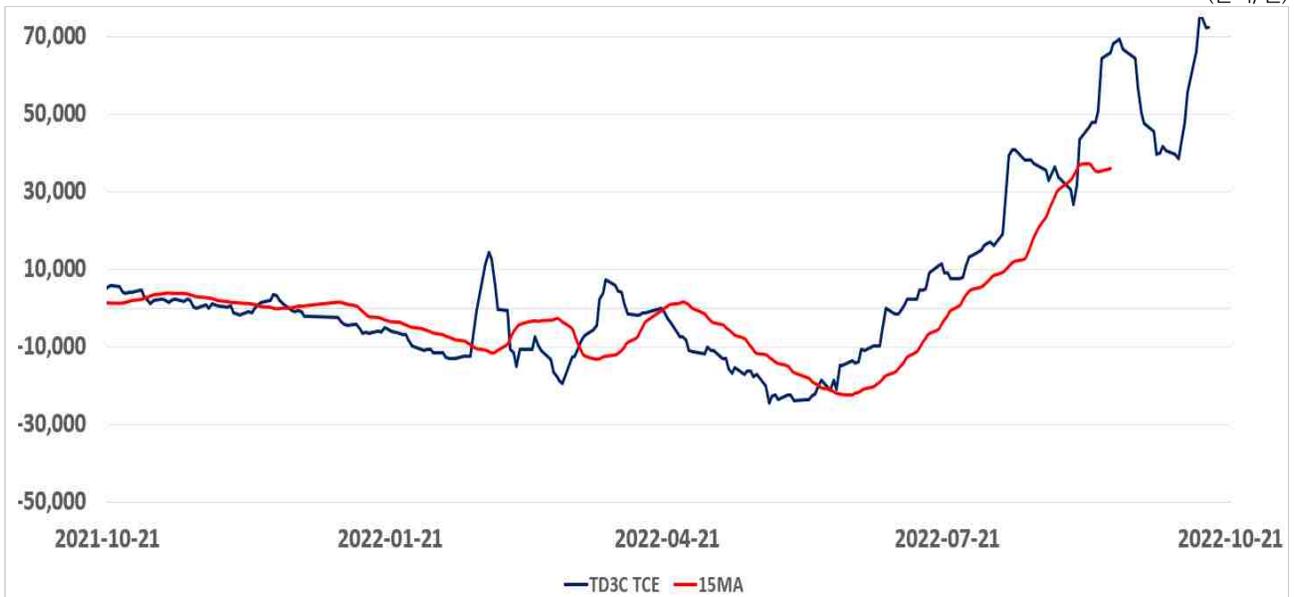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파란색)은 10월 중순 들어 약보합세를 보임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전주(10월 3주) 대비 15.4p 상승한 255.1 기록

(운임) 전주 대비 일부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하락세를 보임

(달러/톤)

구분	10월 4주(WS)	전주 대비 차이		
인도-극동 항로	255.1	▲	15.4	6.4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195.0	▼	2.5	1.3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200.0	▲	10.0	5.3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280.0	▼	40.0	14.3 %

(동향) 미국 내 정제품 재고 감소로 인한 수출 제한, 러시아산 석유제품 금수 조치 시행 등으로 시황 약세 우려

- EIA(미국에너지정보청)에 의하면 지난 7일 기준 일주일간 경유와 난방유 등 정제유 재고는 전주 대비 485만 3000 배럴 감소한 약 1억606만 배럴로 통계 집계를 시행한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내 석유제품 재고가 급감하면서 미 정부는 자국 정유사에 수출 제한을 촉구함
- 지난달부터 시작된 프랑스 석유기업 노동자 파업이 3주 이상 장기화 되면서 유럽 내 석유제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연말부터 시행되는 EU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금수 조치 기한이 도래하면서 유럽의 동절기 에너지 위기가 해상물동량 둔화를 야기하여 석유제품선 시황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제품선 시장(현물)	10월 4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인도-극동 항로	운임지수	255.1	15.4	120.1	447.1	275.0	80.6	160.0	120.1
	평균 수익	36,989	3,105	6,216	72,180	35,744	-96	15,345	7,642
MR	1년 용선료	27,500	0	12,357	27,500	18,658	11,625	13,000	12,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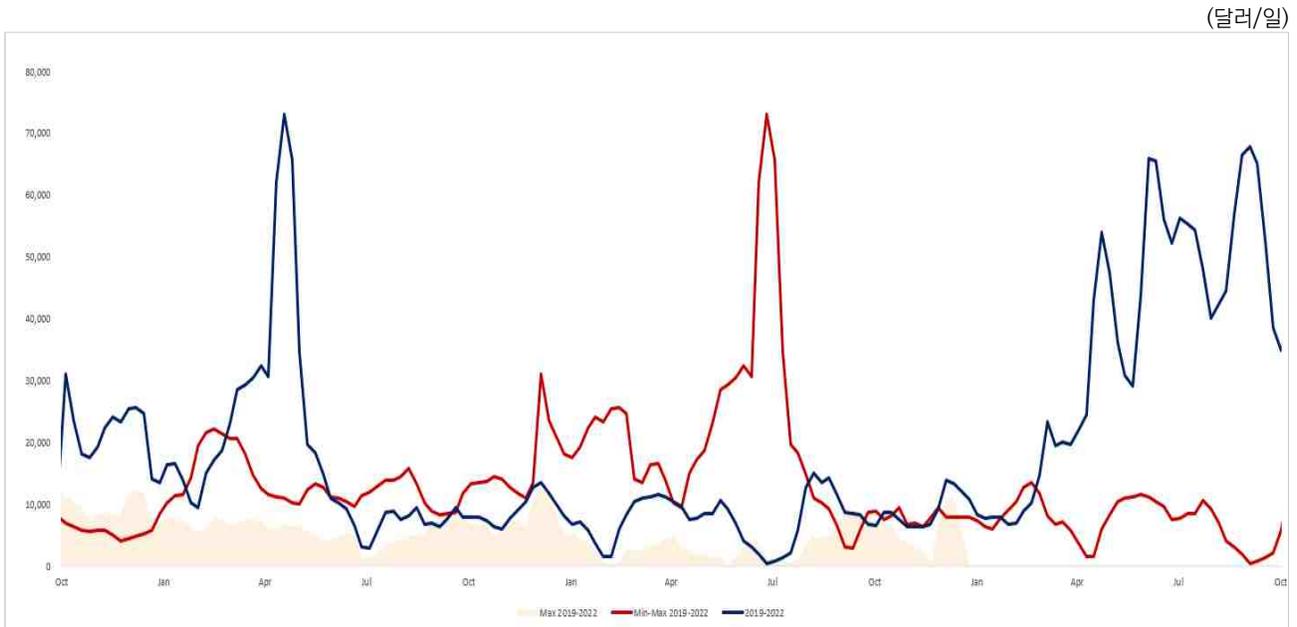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수익 추세선은 9월 말부터 하락추세가 지속되다가 전주 대비 소폭 상승반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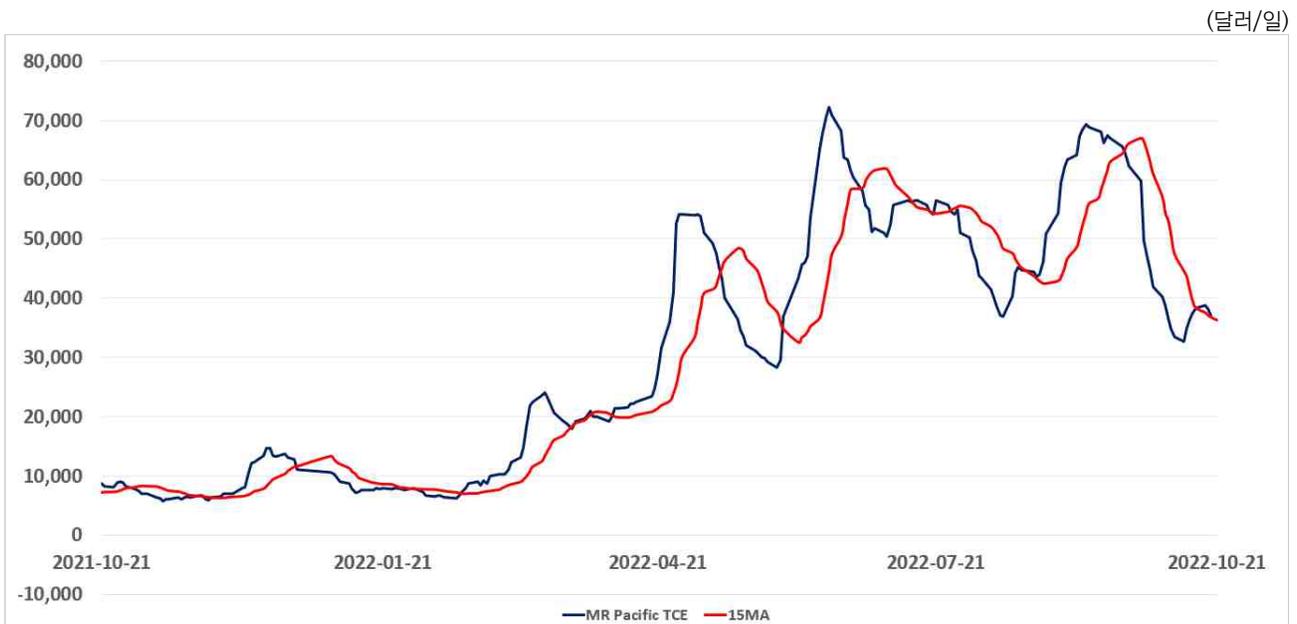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은 9월 말 이후 계단식 하락추세를 나타냈으나 10월 중순에 접어들며 약보합세를 보임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자료: Clarkson



## 5. 중고선

### 1 동향분석

건화물 중고선가 지수는 25.85로 전주와 동일함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5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컨테이너 중고선가 지수는 86.3으로 전월 대비 23.7포인트 하락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2 거래실적

| '22.10.03~'22.10.14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38건의 중고선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Bulk Holland	2017	81,712	DWT	2022-10-14	29	OMC Shipping	Greek interests
Bulk	Jin Yao	2004	52,050	DWT	2022-10-14	13	Jinhui Shpg & Trans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N/B Samsung HI 2439	2022	156,800	DWT	2022-10-14	76	Unisea Shipping	Clients of Thenamaris
Bulk	Royal Harmony	2011	37,238	DWT	2022-10-14	16	Marubeni Corp	Undisclosed interests
Bulk	Senorita	2008	58,663	DWT	2022-10-14	16	Ugland Marine	Greek interests
Tanker	Blueseas*	2006	113,553	DWT	2022-10-13	62.5	United Maritime Corp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Gyme	2018	400	Water Depth	2022-10-13	120	Borr Drilling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InterBreeze*	2011	5,221	HP	2022-10-13		InterMarine Shariah	Clients of Mutawa Marine
Offshore	InterSpray*	2012	5,221	HP	2022-10-13		InterMarine Shariah	Clients of Mutawa Marine
Offshore	Lewek Atlas*	2007	3,600	DWT	2022-10-13		EMAS Offshore	Clients of Allianz Marine
Offshore	Lewek Atria*	2010	2,900	DWT	2022-10-13		EMAS Offshore	Clients of Allianz Marine
Tanker	Parosea*	2006	113,553	DWT	2022-10-13		United Maritime Corp	Undisclosed interests
Bulk	Himawari K	2015	37,786	DWT	2022-10-12	21.5	Blue Wake Shipping	Greek interests
Bulk	Ansac Christine Nancy	2013	32,836	DWT	2022-10-11	17.5	Santoku Shipping	Greek interests
Bulk	Berge Tronador	2020	61,087	DWT	2022-10-11	32.8	Berge Bulk	Greek interests
TankChem	Celsius Miami	2005	19,991	DWT	2022-10-11	13	Celsius Shipping	Clients of Wilmar International
TankChem	Chem Tiger	2003	20,622	DWT	2022-10-11	11.8	Interunity Mgmt	Chinese interests
Offshore	Iberville	2004	2,929	DWT	2022-10-11		GulfMark Americas	Undisclosed interests
Container	JSP Titan	1996	1,122	TEU	2022-10-11	5.8	Jebsen Shipping	Undisclosed interests
Bulk	Cas Avanca	2009	55,561	DWT	2022-10-08	14.3	Peter Dohle	Undisclosed interests
Bulk	Lodestar Pacific	2015	33,393	DWT	2022-10-08	19.5	Fukuyo Kisen	Clients of Evalend Shipping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Offshore	Steady Falcon	2016	6,600	HP	2022-10-06		Steady Offshore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Cap Guillaume	2006	158,826	DWT	2022-10-05	36	Euronav NV	Middle Eastern interests
Bulk	Ocean Adventure	2015	57,814	DWT	2022-10-05	23	Kambara Kisen KK	Japanese interests
Bulk	Promise 2	2010	32,401	DWT	2022-10-05	14	Eugene Group	Middle Eastern interests
Container	X-Press Makalu	2008	2,700	TEU	2022-10-05	25	Sea Consortium	Clients of MSC
Tanker	Alburaq*	2008	112,521	DWT	2022-10-04		Arab Maritime Petro	Undisclosed interests
Container	AS Laetitia	2007	966	TEU	2022-10-04	16	MPC Container Ships	U.S. interests
Bulk	D. Skalkeas	2011	93,281	DWT	2022-10-04	19	Goldenport Shipmgmt	Undisclosed interests
Container	Genova	2007	4,250	TEU	2022-10-04	45	XT Shipping	Clients of MSC
TankChem	High Mars	2008	51,542	DWT	2022-10-04	20.5	Intl Seaways	Undisclosed interests
Container	Northern Jasper	2009	8,814	TEU	2022-10-04	85	Northern Shipping	Clients of MSC
Bulk	Ocean Thyme	2014	82,306	DWT	2022-10-04	20	Hongsun Shipping	Greek interests
Tanker	Sea Legend*	2008	112,521	DWT	2022-10-04	70	Arab Maritime Petro	Undisclosed interests
Container	Sunny Lotus	2013	1,048	TEU	2022-10-04	15.5	KMTC	Korean interests
TankChem	Synergy	2020	34,820	DWT	2022-10-04	31	Maxwell Ship Mngt	Chinese interests
Gas C'rier	Clipper	1992	78,530	cu.m.	2022-10-03	15	PT Newship	Eastern interests
Gas C'rier	Gas Grouper	2009	35,000	cu.m.	2022-10-03	32	Prime Tanker Mgmt	Undisclosed interests



6. 주요 해운지표

(2022.10.21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10월 평균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b>중고선가 (\$ Million)</b>										
건화물선(5년) Panamax	-	-	-	18.0	18.0	18.0	18.0	18.0	18.0	
유조선(5년) VLCC	88.0	0	88	70.0	88.0	78.2	63.0	72.0	69.1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30.0	-12.0	30.0	30.0	56.0	50.2	14.0	44.0	32.5	

자료: Clarkson

<b>신조선가 (\$ Million)</b>										
건화물선 Panamax	35.5	0	35.7	34.3	37.0	35.8	25.5	34.3	30.9	
유조선 VLCC	120.0	0	120.0	114.0	120.0	117.0	85.0	112.0	98.7	
컨테이너선 Sub-Panamax	43.0	0	43.0	40.0	43.0	42.3	30.0	40.0	35.8	

자료: Clarkson

<b>연료유 (\$/Tonne)</b>										
380 CST	Rotterdam	385.8	-5.0	399.8	385.8	688.8	542.6	311.3	488.0	396.2
	Singapore	378.8	-10.8	391.6	378.8	773.5	555.9	324.8	523.5	416.5
	Korea	438.25	-11.3	451.5	437.0	784.5	612.3	361.8	574.5	445.9
	Hong Kong	419.3	-11.3	429.1	413.8	803.8	581.8	325.8	529.0	426.8
VLSFO	Rotterdam	640.0	-10.3	643.8	567.0	980.0	764.8	387.8	605.8	505.6
	Singapore	720.0	-22.3	729.7	639.5	1137.8	839.7	413.0	642.5	535.1
	Hong kong	729.8	-12.0	735.3	629.0	1189.3	854.0	404.5	627.3	533.2

자료: Clarkson

<b>주요 원자재가 (\$)</b>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105.4	233.7	180.6
	중국産	133.0	-0.7	89.1	-	194.5	146.2	-	264.6	193.0
연료탄 (\$/Tonne)	국제價	123.3	-0.6	82.6	-	141.3	123.2	-	244.3	127.7
	중국産	138.6	-0.7	92.8	-	192.9	142.7	-	420.7	182.4
원료탄 (\$/Tonne)	호주산	-	-	-	-	757.5	177.8	-	501.1	272.0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	-	-	-	529.5	147.1	-	577.7	337.4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395.2	11.75	1379.7	1,344	1,769	1,558.4	1,188.5	1,642.5	1,372.4
	밀(국제)	850.8	-9.0	880.1	731.5	1,425.3	930.9	601.8	856.0	702.5

자료: mysteel, CBOT,

<b>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b>										
		11월	12월	1월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2020년 합계	2019년 합계		
ASEAN	수출	10,546	11,248	10,268	10,268	108,50	89,017	95,086		
	수입	5,745	6,556	7,180	7,180	67,703	54,830	56,186		
NAFTA	수출	9,673	10,385	10,426	10,426	11,914	87,821	89,839		
	수입	7,954	6,969	8,319	8,319	87,464	68,263	73,797		
EU	수출	5,299	5,968	5,414	5,414	63,606	47,870	52,758		
	수입	5,059	6,700	5,023	5,023	65,913	55,517	55,795		
BRICs	수출	17,988	18,160	16,049	16,049	193,174	155,346	163,882		
	수입	17,333	17,218	16,498	16,498	170,649	128,653	131,6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